

못났든 잘났든 그냥 수순히 걸어가세요!

21면에서 계속

그러면 “아, 이만저만해서 그러니까 저 다른 걸로 하겠어요.” 한탄 말합니다. 요렇게 해서 사랑과 자비, 의리, 이심전심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관심,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그런데 그냥, 나가서 조금만 잘못했다 하면 그 쪽 이유는 듣지도 않고 “아이, 이놈의 새끼야, 너 어디 갔다가 이제 들어왔어? 공부하러니까!” 이 애비는 딱 출리고 벌어다가 너희들 공부시키는 데...” 이립시다. 누가 아니래나요? 하하하... (대중 웃음) “그렇게 공부시키는데 오늘 새끼, 뭐 어디 가서 자고 들어와?” 그쪽 사정은 알아보지도 않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먼저 내 얘기를 하기 이전에 상대방 얘기부터 듣고, 잘못했으면 “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하고 주인공에 맡기는 거, 또 그렇지 않으면 “애, 그렇게 해서 못들 어왔구나. 그건 참 잘못했구나. 네 친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참 잘못했다. 사나이가 그런 의리도 없

를 내버릴 수가 없습디다. 절대입니다. 이젠,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오늘 내가 이런 말 하는 것은 지금 외국이나 한국이나 너무들 삭막하게 사는 것 같아서입니다. 외국 가면 자녀들이 그냥 그, 마약중독 뭐 이런 것이 돼 가지고요, 부모네들이 상당히 고생합니다. 지금,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 질문자3(여): (대중을 향하여)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20년 전에 서독에 간호원으로 가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 스님: 이걸 (질문자 석에 있는 마이크를 가리키시며) 들고 얘기해.
▲ 질문자3(여): 여러분께서 분명히 저보다도 먼저 스님께 여쭙고 싶은 말이 있는 줄 알지만 제가 여기 안 살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없어요. 20년 전에 간호원으로 서독에 가서 10년 정도 간호원 하면서 살면서 서독 시민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번처럼 기회가 없어요. 여기 올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 그걸 이해해 주시고 떠나기 전에 제 소원이 꼭 하

저는 무감각한 상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저쪽에서 한국 사람은 저 혼자밖에 일 안 해요. 그래서 20년간 한국 사람을 상대 안 하니까 대화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저의 마음을 어머니날인 5월 8일에 어떻게 표시해야 할지... 호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미워하는 감정도 없어서 버리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서 버리고, 그렇다고 20년 세월 탓이라고 속할 순 없고, 또 내 형제를 보면 누구라고 말하기 이전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용서받고 사랑을 받고 싶은데 제가 옆에서 날아가는 철새인지 미워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혼자 속으로 ‘이건 너무나 잔인한 내 마음 병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마음병을 좀 고칠 수 있을지 스님한테 좋은...

▲ 스님: 말씀을 들을까 이거죠?
▲ 질문자3(여): 예, 예.
▲ 스님: 예, 좋아요. 그렇다면 님이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천하에서도 나만은 못했을 거야. 그러나 난 부모에게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고 있어. 그런데 당신은 지금 미워하다가 여기 와서 보니까 미워하는 마음도 또 이빠하는 마음도 없다는데 님이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더라면 뭐가 있었어? 미움도 고움도 없었지? 그리고 서독에도 갈 수가 없었을 거야. 당신이 그래도 어머니를 빌려서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인생 공부를 할 수 있었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인생 공부를 배웠지 고생을 안 했더라면 인생 공부를 못 배워, 남이 쓰러진지 고운지 또는 아프는지 그거를 느끼지 못했을 거야. 그런데 그런 거를 느끼게 됐거든. 그게 자란 사람보다 더한층 공부를 더 시켰으니 사자가 사자 새끼를 저 내리막에다가 내 팽개친 거와 다름없잖아!

그러니 고맙게 생각하고 어머니날 꽃을 사서 드리면서 무조건, 믿고 이쁘고 떠나서 무조건 부모야, 부모란 말이야. 어머니가 살을 주고, 아버지는 안 계신다 해도 뼈를 줬어. 당신의 영혼은 거기에 부합이 합해서 당신이 합해서 당신이 사람이 나왔는데, 그래도 감사히 생각하고 이제는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해가지, 무조건 잘못한 거 잘한 거를 떠나, 이제! 모든 거를 맡겨 놔. 모든 거를 그 용광로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면 재산이 돼서 이 세상에 밝게 빛날 거야. 그 열정도 이제는 환하게 쬐고 그릴 테니까.
“어머니! 이 꽃을 받으세요. 이 꽃이 내 마음의 꽃입니다. 어머니! 꼭 건강하시고 오래 사세요. 팔 노릇을 꼭 할 겁니다!” 그래가지, 믿지도 굶지도 않다는 게 어딴? 그러지 마라. 아무리 부모가 잘못했더라도 그때 당시는 아마 자식이 아팠던 것보다 몇십 곱절 아팠을 거야. 그거를 알아야지. 부모는 자식을 배신하는 법도 없고 또 죽이는 법도 없어.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면 그 환경을 누가 가져왔어?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현실에 닦혀온 거야. 바로 과거에 자기 산 대

로 닦쳐온 거지 누구의 탓도 없어. 알았어?
▲ 질문자3(여): 네,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대중 박수)

▲ 스님: (삼 배 하는 질문자에게) 금할 때는 일 배만 해.

▲ 질문자4(여): 저도 사실 마음 밝히는 공부를 참 하고 싶은데 스님처럼 꼭 출가수행을 해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 스님: 음, 그거는 대답하기가 곤란하잖아, 그건 자유로 하는 건데. 하하하... 내가 느낀 거 두 가지들 얘기하겠는데 머리 꺾고 입신을 한다면 모르는 사람들이 “저이는 스님이야. 그러니까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러지만, 출가하지 않고 공부하는 이는 그냥 스님하고 똑같이 다 실천할 수 있어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넓게 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꺾는 거지,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말이야. 안 보이는 데서는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건 자유야. 스님이 되고 안 되는 건 자유고, 공부하는 거는 스님이 됐든 안 됐든 똑같

지금은 생각해 보는 중이거든요. 스님.

▲ 스님: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는 중이라면 진짜 생각을 해서 단호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마음이 들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나는 시간 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 우리가 시집을 간다 장기를 든다고 하는데, 그런 일에 정신을 빼앗기는 사람이라면 공부도 못할 거 괜히 스님이 돼서 뭘 하느냐. 가정이라도 잘 지켜야지. 이 공부는 모든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알아서도 이 세상을 다 주름잡을 수 있는 거야. 승려가 안 돼도 말이야.

그러나 이 스님네들은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한마음이 돼 줘. 한마음이 돼 준단 말이야. 단호히 결정을 내렸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전체를 그냥 다 끌어들이는 한마음이 돼. 한 기풍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님이 되려면 스님이 돼서 이 세계를 누비면서 이 마음법을 전파해도 좋지. 우리 생명의 근원과, 말하고 체험하고 이러는 게 불교니까. 그러니까 풀한 포기라도 제도하려면 스님이 되고, 그런데 살림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에 꼬달리지 않는다면

이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아, 이렇게 좀 북돋아 주면 나가서 잘못하러도 안 해요.

이것이 부모가 심본의 일 가르치는 일이고, 삼분의 일은 자기가 자작하며 이끌고 다니는, 바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잡아서 나가는 거. 삼분의 일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이렇게 3단계가 한데 합쳐지게 되면요, 이랬어 저랬어도 안 합니다. “아버지!” 그러고 좋아서, 말할 땐 무릎 꿇고 앉아서 정중하게 말하고, 또 재밌게 얘기하고 그럴 때도 이랬어 저랬어, 마구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존경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스님 말씀 하나 들으 정도가 예전 서른 살하고 맞먹는단 얘 기초. 지금 시대가 그만큼 됐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들은 좀 더 생각을 깊이 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나는 항상 그러합니다. 사소한 일 같더라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자녀들을 못 보고 그냥 나갈 때는 반드시 몇 자 써서 “애, 아무개야! 냉장고에 반찬을 넣어 놔요! 그걸 데워서 먹어라. 그리고 언제 들어오는지는 몰라도 좀 일찍 들어와서 배고프지 않도록 해라. 너무 피곤하면 안 되지 않나?” 요렇게 아주 간단하게 써서 상에 놓아 두고 나가면 자식들이 그걸 볼 때 차마 그 자녀를 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자기 부모

나 있어서 그것을 스님께 여쭙고 싶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공부 해 가지고 떠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 박수)

스님, 진심으로 감사하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떠나기 전에 제 마음속 깊이 여쭙고 싶고 배우고 싶고 마음공부 하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어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신데 5월 8일이 어머니날입니다. 딸자식 된 도리로서 어머니께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20년 전에 미운 정 고운 정 다들은 어머니지만 아마도 미운 정이 너무나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20살 되기까지의 그 수많은 괴로움, 피눈물 나는 고생, 남들처럼 제대로 과정을 밟지 못한 처지에 대한 한과 미움이 서러 서러운 마음이 있어서 얼마를 사랑하기 이전에 서독에 갔다는 그 자체가 꽤나 슬퍼요. 남들처럼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 서독에 갔어요. 무슨 일이 잘못되면 ‘한국에 있었으면 시집도 갔을 텐데 서독에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고 어머니를 원망도 하고 미워했었는데 지금 막 한마디 간단하게 여쭙고 싶은 것은, 어머니를 마주 치니까 차라리 남들처럼 미워했으면 속이 풀리겠는데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남들은 괴로우면 울고 기쁘면 웃고 그러는데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요 오늘이 바로 영원한 그날이죠!

에, 이것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아니, 그 도리도 모르고 스님이 된다면 스님은 뭘 해? 캄캄이 스님이 돼야 소용없어, 아무리 천만 명이 되든, 그러니까 결심하고 스님이 되는 거, 이거 보통사람들이 아니야. 허하하... 보통사람들이라면 우리 이렇게 스님 안 돼. 스님 되는 것도 보통이 아니야.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속단해 버리고, “나는 검지도 않고 회지도 않은 도리를 알겠다”고 다짐하고 들어오는 거, 이거 보통이 아니야.

그런데 공부를 한다면 말인데, 어떤 분야든지, 만약에 의학을 해서 아픈 사람을 건진다 하더라도 이 도리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물질 또는 학술로 배워도 마음으로 50%의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게 겉 겹혀서 터득하지 못한다면 자기가 그걸 커버하고 나갈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의대학 이거는 배우고 나가야 된다는 거야,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 질문자4(여): 더 솔직하게 스님한테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말하는 재산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뭐 욕심이 있다가거나 그런 생각이 없는데 단 하나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제가 시집을 안 가고 그냥 스님이 되어서 살 수 있을까, 그것만은 끝까지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은 풀한 포기까지 생각을 안 해. 또 죽는 사람들과 지도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아, 살기 바쁘니까.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뿐이야.

▲ 사회자: 오늘 스님의 높은 법문을 받들다 보니가 어느덧 오늘도 또 예정 시간보다 많이 경과했습니다. 많은 질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회날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은 이만 저희들을 놓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중 웃음)

▲ 스님: 아니 회장님, 내가 불되고 있습니까? 아니, 하하하... (대중 웃음) 아니, 여러분이 나를 불되고 있나? 불되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과 내가 불되고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한데 합쳐져서 우리가 서로 웃고 서로 얘기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한 말씀도 안 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아유, 질문하는 게 밀렸더니 언제까지 밀릴까요? (대중 웃음)

* 위 법문은 1991년 5월 5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테이프도 공부하는
太極四柱 特講

古典 命理學을 완전 압도하는 太極四柱가 나왔다. 太極四柱는 이론이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성으로 완성하며, 자신있게 四柱를 감정할 수 있다. 命理學은 10年, 20年을 공부해도 끝이 없고, 用神잡기가 어려우며, 오판과 실수가 많다. 著者역시 30餘年間 命理學을 연구하였으나 해답을 얻지 못했다. 그러나 太極四柱는 命理學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배우기가 매우 쉽고 논리가 정연하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를 들어가며 흥미진진하게 설명하므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난다. 初步에서 最高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로서 일사천리로 완성할 수 있다. **녹음 - 테이프**로 하루 한시간씩 독학으로 2개월이면 통달하고 인간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더욱이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실제 감정하므로서 공부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命理學과는 하늘과 땅 차이임을 인정할 것이다. 增補 太極四柱는 著者가 前日에 出刊한 太極四柱를 획기적으로 보완(補充)한 것이다. (안내서 무료배부)

◆ 주문방법: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 우편송달로 보내 드립니다.
◆ 강사: 孫中山 會長 直講(74세) 太極四柱 著者
◆ 테이프 16개와 教材代 포함: 20만원 (단, 스님 및 포교사는 15만원)
◆ 계좌번호: 농협 100080-56-022361(예금주: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324-2468 / 053)326-4585
(080-322-6684)

SBS 일요스페셜 0.2평의 기적에서 방영된 확실한 수행건강법
부산 3000배 용맹정진

자극받지 않는 부처님 가피!
밤새워 정진해도 배고프지 않고, 졸리지 않으며, 힘이 솟아나는 특별한 3000배! 과학적, 의학적, 인체공학적으로 탁월한 효과가 완벽하게 증명된 세계 유일의 3000배!
600만 배 성만한 청전스님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죽비소리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절을 하며 공경심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며,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일 만 번 염송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사함의 행복과 건강을 일깨우고,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결핍돌인 큰 업장 3가지는 물론 녹아내리고, 3가지 큰 소원을 즉시 이뤄줍니다. 21세기 인류 최고의 수행법이며 심신건강법이고, 가장 확실한 예방의학이며, 가장 완벽한 요가입니다.

♣ 날 짜 : 2007년 5월 12일(토) 저녁 9시~ 2007년 4월 13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비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포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모 2벌레, 면티 2매, 물병, 수련복(100% 면 소재 하의)2매. ※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않습니다.

♣ 장 소 : 법왕정사 부산 금정법당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법왕정사**
수행중심교육도량

◎ 청견스님 011-9088-9449
◆ 부산 금정법당 (051) 583-7886
☞ 지하철 1호선 두산전철역 7번 출구 남산정미 회화점 50M 경유빌딩 4층
◆ 대구 신천법당 (053) 743-0063
☞ 신천 전철역 3분거리, 동대구역 5분거리, 고속버스터미널 1분거리

불교성지순례 안내

1. 불교 4대명산 오대산/대동/북경6일
◆ 일정: 인천-북경-오대산(1)-대동(1)-북경(2)-인천
◆ 출발: 매주 목요일
◆ 경비: 899,000원

2. 하늘로 떠나는 티벳 열차순례 9일(청평열차)
◆ 일정: 부산-성도(1)-라사(2)-장제-시기체(1)-라사(2)-성도(2)-부산
◆ 출발: 매주 월,목요일
◆ 경비: 1,890,000원

3. 영혼의 도시 티벳 일주 9일
◆ 일정: 인천-성도(1)-라사(2)-장제-시기체(1)-라사(2)-성도(1)-인천
◆ 출발: 매주 수요일
◆ 경비: 1,650,000 ~ 1,890,000원

4. 불교 4대명산 상해/구화산/보타산/황산/향주 8일
◆ 일정: 인천-상해-수주-향주(1)-구화산(1)-황산(2)-향주(1)-보타산(1)-상해(1)-인천
◆ 출발: 매주 목요일
◆ 경비: 1,190,000원

5. “산과 바다의 어울림” 상해/보타산/낙가산 4일
◆ 일정: 인천-상해(1)-보타산(1)-상해(1)-인천
◆ 출발: 매주 월, 수, 토요일
◆ 경비: 649,000원

♣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하나투어 HANATOUR 불교성지순례전문여행사
전문판매대리점
(주)VIP여행사 진주시 신안동 8-10번지
신안동 ☎ 055)743-5001, 팩스 743-5003
E-마트 ☎ 055)741-9999, 팩스 742-4444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빛으로 오신 부처님 늘 나와 함께!
설법도량 앞산 是方寺 시방사
비로자나 삼존불 점안 창건법회
불기 2551년 5월 13일(일) 오전 10시

마음의 눈을 뜨는
석호 스님의 백일법문
5월 15일부터 100일간 매일 저녁 8시
●참가자 : 남녀노소 누구나 무료개방

시방사 위치
시방사 위치는 남부시장 인근에 위치하며, 대덕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지도 참조)

열린설법도량 앞산 시방사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9동 앞산 7길 103번지
053)654-0408